

2021년 6월 1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4편 7~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라

[시편 23편 1~3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27장(통361) 주님 주실 화평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7장 1~14절(구약p.1245)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 말씀선포 / 네 짐승과 인자의 환상

다니엘서는 1~6장까지 다니엘이란 인물을 중심으로한 역사편과 다니엘이 받은 계시편인 7~12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6장까지는 7장 이후에 계시를 증거하시 위한 준비, 또는 기초로 보는데 이는 7장 이후 본편으로 시작되는 계시의 내용이 허구의 내용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며 그 환상 또한 확실한 것임을 증거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계시에는 일일이 연대가 있는데, 7장은 벨사살 원년, 8장은 벨사살 3년, 9장은 다리오 원년, 10장은 고레스 3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2장은 다리오 원년으로 나뉘어 집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거적 해석법을 취하여 본문의 내용을 역사의 내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다니엘시대도 이 해석은 앞으로 있을 계시였으며, 지금 역시 이 다니엘을 읽은 우리에게도 미래적인 내용 다시 말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계시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왕이 즉위한 B.C. 555년에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환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는데, 다니엘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머리의 짐승 환상과 이 환상 이후에 나타나는 인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는 이 환상의 대략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1~8절까지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타나고, 9~12절은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이 보이며 거기서 짐승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 13~14절은 인자 같은 이가 강림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과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성도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1. 1~8절까지는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 이 네 짐승은 사자와 같은 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곰과 같고, 곰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턱 이가 있는 동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네 짐승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악한 일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은 각기 선한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너그러운 자와 포악한 자 등 많은 모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곰과 표범같이 사나운 짐승들이 힘없고 연약한 먹이를 물어뜯어 삼켜 버리는 것처럼 때론 강대국들은 악한 자들에게 폭력과 억압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자들의 일면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모든 세력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멸망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짐승의 환상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행사했던 강대국들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한낱 짐승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사냥꾼에게 사로잡히듯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하며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와 방식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이후 영원한 삶에서 더욱 깊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응하심으로 나타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에베소서 4장 22~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

도는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 9~14절까지는 인자의 환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 본문 9~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로 표현된 것은 그분이 세상 끝 날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 왕으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차지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과 백성 중에 구별된 무리들이 오직 예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권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는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에 성도들은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핍박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이내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여 지금의 고난을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여 천국 백성답게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성공과 즐거움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매순간마다 인정하고 오직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70장(통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폐 회 / 주기도문